

< 사랑하는 청년부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

-09.08.24.월 새벽 04:04

황금물결 넘치는 청년부야. 나 예수다. 너희의 영원한 청년 예수니라. 너희들이 내가 편지하니 기쁘니. 나는 매우 흥분되고 설레이고 기쁘구나. 너희들이 나를 부르며 기다리고 있으니 내가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너희에게 나타나게 되었구나. 너무나 고맙다. 젊은이들, 나의 청년부. 나의 사랑하는 청년부. 먼저 너희들 수고가 많다. 수고가 참으로 많다. 너희의 젊은 날을 하늘 앞에 바치고 영광 돌리며 어렵고 힘든 일하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너희들이 나는 너무나 대견하다. 미안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구나. 너희 청년부는 말이다. 생선으로 말하자면 가장 맛있는 가운데 토막이다. 세상의 청년들은 술과 향락과 이성애 물질에 빠져 자신의 편안함과 안위만을 추구하지만 이곳 섭리사 청년들은 깨끗하게 하늘만을 위해 살기 원하는 자들이니 이곳보다 합당한 청년들은 세상에 없구나. 청년부들은 세상에서의 유혹이 많기도 많구나. 다른 자들은 모른다. 이 젊고 혈기 왕성한 나이에 세상사람 다 하는 것 끊어가면서 이 섭리사 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로다. 다른 자들 다 몰라도 내가 너희마음 알아주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교회곳곳마다 청년부들의 손이 안가는 곳이 없다. 배고픈 어린 자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늘 앞에 헌물도 바치며 이들의 마음을 표현해 왔단다. 몰라주면 안 된다. 알아줘라. 청년부들은 늘 더 하고 싶다. 늘 더 몸부림 치고 싶어 한다. 하늘 앞에 서지 못 하는게 한 맺힌 자들이다. 하고 싶어도 매여 있는 곳이 있기에 하늘의 사명감 가지고 이 섭리사 위해 자신의 젊음 바치고 있는 자들이다. 사람들은 항상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내가 한 마디 해 줘야겠다. 세상의 일을 하니 지금 재림의 때에 어찌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걱정의 말들 많이 하는구나. 재림의 때를 준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영적인 것에만 매달리란 말이 아니거늘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하늘의 뜻을 먼저 이루어 드려야 하느니라. 청년부들은 더욱 모든 집회에 꼭꼭 참여하고 피곤할 지라도 영원한 그 더러운 나라 가는 것만은 몸부림치며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선하고 착한 행실보시며 그 나라 아버지의 나라 가기 소망하시는데 그곳에 가야 되지 않겠니. 청년부도 온전한 청년부가 있는가 하면 더 몸부림 쳐야하는 자들이 있다. 섭리는 풀로 뛰어도 어려운 것 힘든 것 반드시 많다. 그렇듯 청년부들은 자신의 육적인 일을 가지고 영적인 것에 투자하는 모든 시간에 뒤쳐져 있으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에게 투자하고 몸부림 쳐야 한다. 육신이 너무 피곤해 새벽 나와 내 아버지, 성령어머니가 좌정하시는 시간을 피하며 사는 자들은 합당치 않다. 일을 줄여서라도 나에게 나와야 한다. 나에게 나오지 않는 자, 나를 만날 만한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난 날 하지 못한 것과 모든 죄악을 낱알이 하늘 앞에 고하고 회복하여 온전히 몸부림쳐야 하느니라. 세상 속에 있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이 쌓여 있구나. 자신도 모르게 지은 죄 또한 결코 회개치 않으면 나의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없으니 온전히 회개하여야 한다. 온전히 회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야 한다. 그리 할 때 내가 더욱 너희 청년부 가운데 물 붓듯이 은혜를 퍼

부어 줄 것이다. 은혜 받길 원하느냐. 간구하여라. 매달려라. 내 발아래 엎드려 온전히 공손하게 나를 찾고 부르짖어야 한다. 진정으로 진실로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리라. 청년부 깊이 있는 심정의 청년부가 되어야 한다. 아픈 마음, 힘든 마음, 고통 받았던 모든 마음을 내 앞에 고하며 심정이 살아있는 청년부가 되어야 한다. 큰 자들은 성장한 자들은 일일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웬만한 것은 다 스스로 알아서 깨닫고 잘하니 웬만한 것은 다 스스로 알아서 깨닫고 잘 하듯 너희 또한 그리 하여야 한다. 이제 성장한 자들이 되어 나의 심정을 받고 나의 재림을 진정으로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나의 재림이 어찌 이루어지는 것인지 멀게만 느껴질 것이다. 청년부 중앙은 두루 다니며 이들에게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 심정 받길 원하니 어서 속히 내 앞에 나아와 간구하길 원하는 나 예수의 마음을 전하여다오. 기다리고 기다리며 소망한다. 곳곳을 다니며 아파하며 신음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이들을 지옥 같은 그곳에서 건져내 주고 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하게 깨워줘야 한다. 늘 새롭게 싱그럽게 편안히 이들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간구하며 모든 자들은 편안히 이들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간구하며 모든 자들을 만나주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라. 청년부 섭리사의 튼튼한 허리라 하였는데 기존의 선배 청년부가 빠지면서 이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나 보다. 시간이 없다하더라도 이들 버릴 수 없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니 어서 만나 이들과 함께 대화하며 나를 느끼도록 도와 줘야한다. 마음이 차디차다 못해 냉랭한 자들이 너무나 많구나. 한계에 부딪혀 있는 자들도 너무나 많으니 그 한계의 막힌 부분을 속 시원히 뚫어 주길 기대한다.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부어 주리라. 어서 속히 시행하여라. 아픈 자들 치료해주며 업어서라도 끌고서라도 나의 아버지 나라에 데려갈 것이니 너희는 너희의 죄 때문에 가지 못하는 일 없도록 너희의 본분에 충성을 다하여라. 나 예수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는 예수를 절대적으로 믿고 나의 아버지를 갈망하며 그의 나라를 소망하며 할 수 없겠다 싶을 때까지 몸부림치며 매달리고 또 매달려라. 육적인 것에 빠져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회사 각자가 일하고 있는 곳을 나 예수가 거하는 장소로 변화시켜 나 예수를 찬양하고 부르짖는 곳이 되게 하여라. 너희의 몸부림의 모습을 보고 내가 너희 기도에 응답하리라. 온전한 자가 얼마 없나니 마지막 지금 이 때 마지막 기회주고 계시니 하늘아버지의 자비로움에 감사영광 돌리며 나의 사랑하는 심정의 청년부 어서 속히 깨어나 나 예수 맞을 준비 하여라. 나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하는 사랑의 예수니라. 아픈 곳, 슬픈 곳 나에게 고하여라. 내가 반드시 들어주리라. 합당한 것 고하여라. 그리해야 응답하리라. 끝까지 부르짖어야 한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나 예수의 이끄심에 따라 돌아온 자들 진정으로 회개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연기는 없느니라. 이 섭리사 청년부들 나 예수가 너무나 사랑해서 편지했다. 안녕.